

## 佛語佛文學科의 當面問題

鄭 昭 盛

(檀國大 佛語佛文學科)

### I. 커리큘럼 문제

각 大學 佛語佛文學科의 커리큘럼을 비교해 보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각 佛語佛文學科가 채택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어떤 경로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커리큘럼은 大學教育의 本質的인 스키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問題에 관심을 갖기 전에 科는 최소한 필요한 수자의 敎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敎수의 확보 수자는 科의 전공분야를 따라 적절히 안배되어 있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공사회인 大學, 특정 科에서 한 분야라도 강의할 말을 전공 敎수가 충당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커리큘럼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특정 科에 세분된 분야를 따라 敎수가 골고루 안배되어 있어야 함은 大學教育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佛語佛文學科의 경우, 敎授가 文學이나 語學 어느 한 분야로 치우쳐 있으면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미치게 된다.

佛語佛文學科의 教育 목표는 佛語의 學習과 佛文學의 理解라는 두 가지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해방 초기 日本語를 통한 佛文學 學習의 기회는 비교적 쉬웠으나, 佛語學研究의 기회가 대

체적으로 쉽지 않았던 世代에서는 佛語佛文學科의 경우, 敎授들이 文學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았으며, 사실이 그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語學을 文學의 부수적 사항으로 취급, 아무런 전문적인 연구의 기회를 갖지 못한 文學 전공의 敎수에게 語學 강의를 맡기는 사례가 허다했음을 볼 수 있었다.

아무리 유능하고 성의 있는 文學 전공의 敎수라고 할지라도, 語學 강의를 효과적으로 해내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문학과고 어학이고간에 특정 전공에의 체계적인 지식이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각 대학의 佛語佛文學科는 어쩔 수 없이 文學 전공의 敎수를 수적으로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결과 학생들은 語學 學習에 결정적으로 허약하게 되는 결과에 떨어지고 말았다.

佛語 學習에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졸업한 결과, 佛文學 졸업은 佛語에의 능력과는 무관한 듯한 인상을 주기까지 했다. 佛語佛文學에다 大學院까지 졸업한 학생이 그 화려한 學力에도 불구하고, Paris cnous나 프랑스 지방 Crous에서 최소한의 의사표시도 하지 못해 찢 찢매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된다. Corée에서 왔고 佛語佛文學 출신이라고 하면, 담당 직원이 고개부터 흔들면서 당혹해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다. Corée가 美國圈이라 워낙 영어가 세  
니가 佛語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이 아니  
냐고 반문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불어가 안 될  
경우, 英語로 물어오기도 한다. 그러나 영어마  
저 통하지 않으니 그들은 기가 차서 그러면 당  
신은 무슨 외국어를 할 수 있느냐고까지 묻는  
다.

Corée에서는 모든 佛語學, 佛文學 강의가 한  
국어로 행해진다고 했을 때, 프랑스인들 중에는  
놀라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東洋인이 아무리 유  
능한 교수라 할지라도 西洋語로 강의하기란 쉬  
운 일이 아님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佛語  
佛文科인 이상, 한 두 강좌는 佛語로만 강의되  
어지기를 기대할 수도 있다. 아직은 教授의 能  
力과 취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학생들  
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프랑스에 처음 유학한 학생들은 근 2년 가까이  
교수의 강의를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전혀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佛語佛文科 출신  
의 학생이 그것의 本國인 프랑스에서 전혀 강의  
를 알아들을 수 없다면, 틀림없이 문제는 심각  
한 것이다. 佛語佛文科 학생은 佛語로 하는 강  
의를 어느 나라에서든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 스스로 발표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것은  
가장 엄연한 佛語佛文科의 理想이고 現實이어야  
한다. 外國에 開設된 韓國語科에 다니는 학생이  
서울에 와서 전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깊은 의아심을 가지게 될 것이  
다. 당신네 나라 韓國語科란 도대체 뭘 하는 데  
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좀더 나은 커리큘럼의 작성을 위해 교수는 분  
명히 語學쪽으로 증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  
의 생각이다. 흔히들 佛語學이라 하지만, 그리  
간단한 개념이 아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人文  
科學의 本山으로서 言語學의 중요성은 심분 강  
조되고 있으며 言語學은 모든 人文科學의 本質  
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佛  
語學'이란 결단코 단일 개념일 수가 없다.

<모델 1>

- |        |        |        |
|--------|--------|--------|
| 1. 음성학 | 3. 통사론 | 5. 어휘론 |
| 2. 음운론 | 4. 의미론 |        |

의미론과 어휘론이 다소 중복적인 요소가 있  
다고 하더라도 4가지 분야로 분명히 대별된다.  
語學이란 것이 非文學的 개념의 종칭일 뿐 위의  
4가지 개념은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해야 할 것  
이다. 그것의 거리란 文學, 語學의 차이만큼이  
나 엄청난 상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수는 '語學'이라는 초빙 이유로써  
충당되어져서는 안 된다. 語學담당 교수는 위의  
5가지 분야 중 하나만을 전공했을 것이기 때문  
이다.

<모델 2>

- |       |       |       |
|-------|-------|-------|
| 1. 소설 | 3. 평론 | 5. 어학 |
| 2. 시  | 4. 희곡 |       |

위의 모델로 교수가 초빙된다면 역시 좋은 커  
리큘럼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5번의 語學담  
당의 교수는 <모델 1>의 전분야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델 3>

- |       |        |        |
|-------|--------|--------|
| 1. 소설 | 4. 희곡  | 7. 통사론 |
| 2. 시  | 5. 음성학 | 8. 의미론 |
| 3. 평론 | 6. 음운론 | 9. 어휘론 |

<모델 3>에 의하여 교수를 초빙해야만 어느 정  
도 佛語佛文科다운 커리큘럼을 짤 수 있을 것이  
다. 학생들의 회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당  
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룩되어져  
야 할 모델이다. 小說 전공의 교수가 詩와 희곡  
과 평론을 강의할 수 있을지라도, 음성학 전공  
의 교수가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어휘론을  
강의하기란 어렵다. 그것은 現代言語學의 놀라  
운 발달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우리는 전술한 대  
로, 現代 人文科學 분야에서 言語學의 중추적  
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델 3>에 의한 교수의 구성이 이룩되어졌을  
때 우리는 바람직한 佛語佛文科의 커리큘럼을 기  
대할 수 있으며, 비로소 학생의 회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로 보아, 대학  
사회에서 분명히 영세한 科에 속하는 佛語佛文  
科가 9명의 교수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  
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6명 정도의 교수로 재

편성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델 4>

- |        |             |
|--------|-------------|
| 1. 소설  | 4. 음운론      |
| 2. 시   | 5. 통사론      |
| 3. 음성학 | 6. 의미론, 어휘론 |

물론 위의 모델은 거의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모델이다. 佛文學史上 가장 중요한 역사물 지니고 발전해 온 회곡을 회생한다거나, 現代文學 장르에서 독자적인 분야를 차지하고 심화되고 있는 評論을 회생한다는 것은 분명 위험한 생각이다. 이 분야에도 분명히 전문적인 論文을 쓴 教授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필자의 좁은 생각으로는 文學 장르 상호간의 간격이란 <모델 1>에서 볼 수 있는 語學 분야 상호간의 독립성보다는 뛰여넘기에 덜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설 전공의 교수는 평론을 강의할 수 있으며, 시 전공의 교수는 회곡을 강의할 수 있으나, <모델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음성학 전공의 교수는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어휘론 강의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건대 전문적인 論文作成을 위하지 않는다면 폭 넓은 강의를 일반적으로 들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모델 4>는 학생의 회생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해방 후 佛語佛文學科 강의진의 특수사정 때문에 커리큘럼은 주로 <모델 2>에 의해서 짜여졌고, 그것이 3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커리큘럼은 現實적으로, 그리고 理想的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명실상부한 佛語佛文學科의 그것과 크게 유리되는 실정에 이르렀다고 느껴진다. 그러한 커리큘럼에 의해 교육받은 학생이 世界的 안목에서 佛語佛文學의 일반적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은 뻔한 이치이며, 프랑스인 교수의 강의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現實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커리큘럼은 나의 좁은 생각에서 볼 때 어쩔 수 없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II. Lab의 강화

佛語實習을 커리큘럼상 Lab이라 한다. 각 대

학 佛語佛文學科의 커리큘럼과 시간표를 유심히 살펴보면 Lab에 대한 처리의 다소의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주 경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에 두드러지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Lab은 보통 하루의 맨 마지막 시간인 7,8 교시에 배당되어 있다.
2. 토요일 오후로 짜여져 있는 대학도 있다.
3. Lab이 '기초불어' '중급불어' 등의 시간과 겹치는 것이라 하며 설강되어 있지 않는 대학도 있다.
4. Lab을 맡은 강사는 교수인 경우도 있으나 조교나 대학원을 갖 나온 사람인 경우가 흔하다.
5. Lab은 강의과목으로 설강은 되어 있으나, 희망하는 학생만 듣게 하여,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

Lab교육의 부실은 학생으로 하여금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병어리가 되게 한다.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Lab교육은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학생들은 오히려 외국인이 강의하는 회화시간에서보다 Lab을 통해서 더욱 확실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매우 바람직하다.

1. 회화시간은 대부분 체계가 없으며, 강의가 일회적이라 따라하면서 노트를 할 수 없다.
2. Lab은 대부분 교재에 의한 발음의 듣기와 따라하기 때문에 예습을 할 수 있고, 다음에 혼자서 복습할 수 있다.
3. 회화시간의 외국인 강사는 개인에 따라 발음의 차이가 있고, 강의 자체에 성실도의 차이가 있다.
4. Lab은 전문가에 의해 음성이 취입되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다.
5. 회화시간에 일단 나왔던 표현은 강의가 끝나면 되풀이할 수 없다. 그러나 Lab의 카세트는 몇 번이고 혼자서 간단한 조작에 의해 되풀이될 수 있다. 이것은 Lab의 가장 큰 장점이다.

外國語文學科 학생들은 모름지기 카세트 녹음기의 휴대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정이건 식당이건 등하교시의 버스안이건 언제든지 카세트를

들어야 한다. 문제는 듣기의 훈련이지 말하기의 문제는 아니다. 들리면 말할 수 있게 된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이지 말하지 못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佛語佛文學科의 커리큘럼은 학생들의 귀 훈련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Lab 교육의 정상화이다. 학생들의 듣기 훈련의 만족할 만한 효과를 획득하기 위한 Lab 교육의 정상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열거될 수 있다.

1. 테크니션이나 조교에게 강의 진행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교수가 강의 진행을 해야 한다.
2. 기필코 학점화해서 전공필수로 듣게 한다.
3. 한 학기 3학점으로 끝나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4년 내내 8학기 동안 들게 해야 한다. 그럴 경우 3학점은 4학년 2학기에 채점할 수도 있다.
4. 체계적인 교재 개발을 해야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Lab에 들어오기 전에 범위 안의 전 문장을 외우게 해야 한다.
5. Lab과 프랑스어 회화 시간을 아울러 진행시키면 뚜렷한 效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Ⅲ. 결 론

커리큘럼의 점진적인 혁신은 佛語佛文學科 40년 역사에 찾아 온 시대적 요청인 듯이 느껴진

다. 현금의 것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한국의 佛語佛文學은 세계성을 완전히 잃고 局地性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커리큘럼의 혁신은 필연적으로 語學 전공의 교수들의 많은 신규 임용을 뜻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아울러 현행 빌로 중요시되지 않고 있는 Lab 교육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어학의 집' 등을 만들어, 科 학생들로 하여금 1,2주 혹은 1,2개월 간 입주하여 原語로만 사고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좋은 方法이다. 그런 모든 것의 기본은 Lab 교육의 강화이다.

끝으로 현금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Syllabus의 작성과 철저한 이행도 佛語佛文學科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他大學에 있더라도 같은 과목을 맡은 교수들은 완벽한 Syllabus의 작성을 위해 모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學會의 이사진은 각 대학 佛語佛文學科의 커리큘럼 제구성 문제와, Lab 교육 문제, 그리고 Syllabus의 완벽한 작성 등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 있는 회원들을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다른 學會의 경우, 순수 學會와 敎育學會가 分立되어 있는 사실의 의미를 음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現今의 語學과 文學, 즉 文化一般의 조류와 무관한 佛語佛文學科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